더민주 ‘호남민심 잡기’ 특별기구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선대위 첫 회의…총선체제 돌입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 신진인사 집중 투입키로

“安·千 통합 우려할 일 아냐…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종인 선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체제 돌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당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호남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 당 내외에는 “주인이 아닌 손님 취급을 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그동안 표류해온 호남특위 설치 문제와 관련, “‘호남특위’ 대신 다른 명칭을 쓰기로 하고 특별기구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위’라는 표현을 쓸 경우 우리 당의 뿌리인 호남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병관 웬젠 이사회 의장, 오기형 변호사 등 최근 영입된 신진인사들을 포함한 호남 내 새로운 주체들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기에 기구를 발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호남과 함께 영남과 충청, 강원 등 열세 지역에 대한 각각의 특별기구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과 국민회의의 통합에 대한 언급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두 세력의 통합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통합이 됐다고 해서 바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할 것까지는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더많은 민주주의를 4·13 총선의 키워드로 제시한 뒤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정치인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치가 사회의 갈등 구조와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가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가 점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선 될 수 없고, 그것이 안되면 갈등구조가 사회폭발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많은 민주주의를 해야겠다”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뼈저리게 느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목표를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종인 ‘친노 선대위’ 비판에 “신경 안 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도로 문재인 당’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친노 위주의 선대위원 인선과 관련, “여하간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에 대해 저 자신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보위 참여에 대해 후회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던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더민주의 내의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해왔던 호남 민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서 “제가 여기(더민주에) 올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들어왔다”며 “1차 (선대위원) 명단이 발표되고 난 다음 ‘친노 패권주의를 타파하고, 선대위에 친노를 안 넣겠다고 해놓고 12명의 친노를 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과연 어떤 사람이 친노고 어떤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확인 해봤다”며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결심해서 명단을 발표했다”고 현재 선대위원 인선을 번복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

김홍걸 ‘더민주’행…씁쓸한 지역 민심

박지원 “솔직히 당혹스럽다…목포 출마 안할 것”

지역민들 “DJ 위상에 상처 입을까 걱정”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입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야권의 ‘DJ 적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역 민심은 ‘씁쓸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더민주를 탈당한 DJ의 복심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홍걸씨의 입당에 대해 “솔직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저와 문재인 대표 간에 오래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 분명하게 이희호 여사님의 (반대) 의사가 문재인 대표에게 전달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김 교수도 오십이 넘은 성인으로, 그 분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홍걸씨의 목포 출마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홍걸씨의 더민주 입당 논란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씁쓸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홍걸씨의 진정성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DJ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현실 정치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 발표가 불가피 했다면 특정 정당에 입당하기 보다는 중립 지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걸씨의 더민주 입당과 맞물려 4월 총선 출마설과 비례대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DJ 위상에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DJ의 장남과 차남인 홍일씨와 홍업씨는 국민의 정부 탄생을 위해 가혹한 탄압과 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 참여의 명분이 있었지만 홍걸씨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선거운동 잠시 접고 제설작업

국민의당 광주시당·출마예정자 등 민생 행보

4·13 총선 광주지역 출마예정자들이 25일 잠시 선거운동을 접고 폭설과 한파로 꽁꽁 언 도심에서 제설작업을 펼쳤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출마예정자 뿐 아니라 당원들이 모두 나서 시내 곳곳에서 제설작업을 벌였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창당 이후 첫 행보로, 광주시내 곳곳에서 눈길 쓸기 등 제설작업을 펼치며 ‘시민안전 지키는 민생정치’를 선보였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원과 4·13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이날 노약자와 어린이, 이동 약자의 빙판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마을 길 등 골목 제설 작업에 힘을 보탰다.

조정관 광주시당 공동위원장과 남구 출마예정자인 서정성·정진욱 예비후보는 주월동 푸른길에서, 서구을 김하중 출마예정자는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서구갑 정용화 출마예정자는 5·18 인근 공원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다. 또한, 북구갑 김유정 예비후보는 말바우시장 인근에서, 북구을 최경환 예비후보는 건국동 농촌마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했다. 이밖에 동구청장 재선거에 나서는 양혜령 예비후보는 금남공원 사거리에서 눈 치우기에 나섰다.

이들은 “최악의 폭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설작업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꽁꽁 얼어붙은 시민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오직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명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이날 남구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향교 앞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노남수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건국동과 양산동·일곡동 등 폭설피해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애인 고용의무화 실현 위해 법 개정해야”

김영집 국민회의 광주위원장

김영집 국민회의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완, 장애인 고용의무화와 생활보장형 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차별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매우 저조한데, 이는 곧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예산이 부족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경 동구청장 재선거 공식 출마선언

안재경 전 경찰대 학장이 25일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행정고시 합격 이후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경찰로 전직했고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기관장으로서 행정적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나의 꿈을 키워주었던 동구에서 머슴으로 봉사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구 주민의 꿈인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 ‘누구나 가보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며 “행정 전문가로서 이른 시일 내에 동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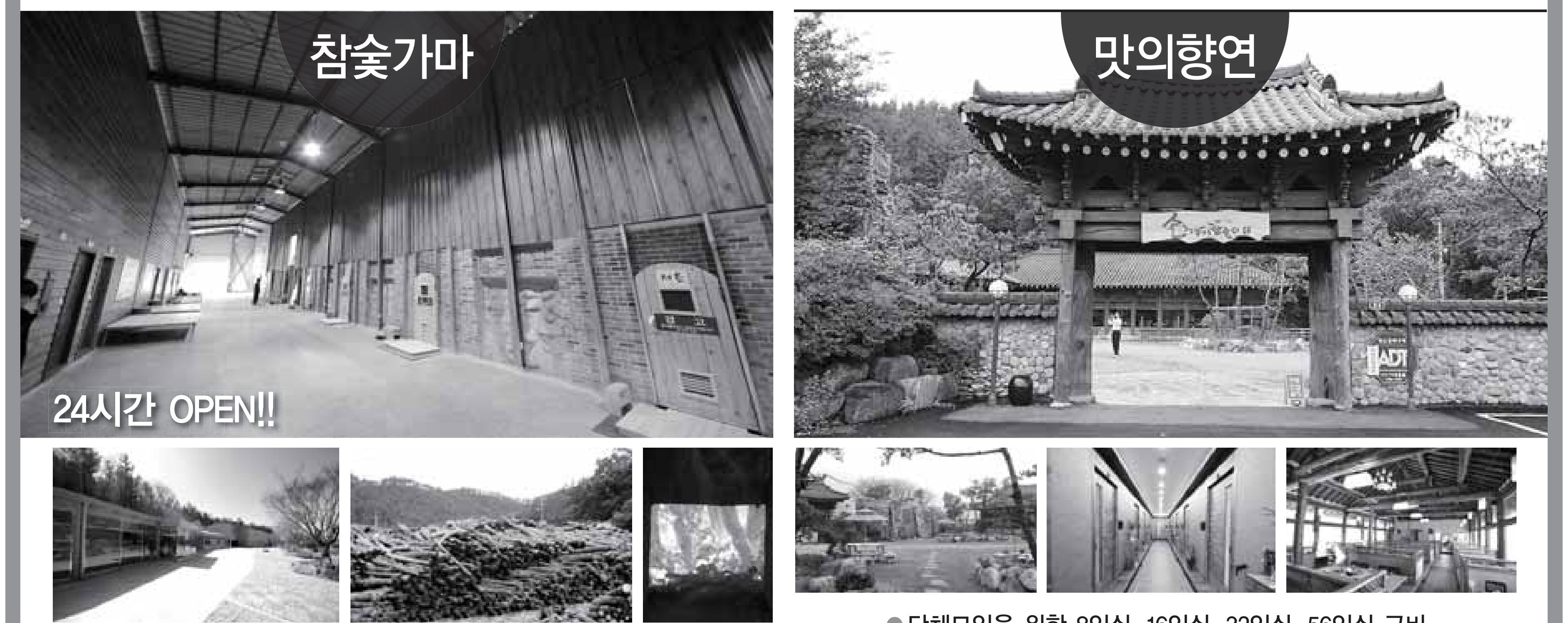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북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